

2023-07-31 (2023-28호)

07월 3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달러·수급에 단단해지는 박스권... 국내외 경제지표 확인할 때

서울, 7월3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 거래 범위 안에서 등락하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범위는 1,260-1,290원이다.

전주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종료된 만큼 글로벌 외환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야기할 큰 이벤트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이벤트 종료 이후 글로벌 달러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은 데 따라 원화는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나올 여러 국내외 지표 결과에 대해 시장이 잦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인해 시장 호가가 얇게 형성되는 점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주중 중국과 미국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로존 7월 물가와 2분기 GDP 결과를 확인한 이후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 7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이 경기 지원을 위한 정책 스탠스가 확인된 이후 중국 정책 기대감이 위안화를 떠받치는 상황이 지속될지는 원화에 있어 단기 변수다.

다만, 최근 역내 수급이 기존 박스권 안에서 기계적으로 소화되는 패턴을 감안할 때 원화의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녹록지 않다.

국내 확인할 경제지표로는 7월 수출입동향과 소비자물가 및 외환보유액 등이 있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5%(중간값) 줄어 10개월째 내리막길을 보이는 한편 6월(-6.0%)에 비해 감소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무역수지는 30억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4% 상승해 22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31일(월)

⊙ 기획재정부: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11:30)

8월1일(화)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7월 수출입동향

⊙ 한국은행: 2023년 13차(7.13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8월2일(수)

⊙ 통계청: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10:30)

8월3일(목)

⊙ 한국은행: 2023년 7월말 외환보유액 (06:00)

8월4일(금)

⊙ 특이 일정 없음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24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7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6월	2.4%	-2.2%
7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6월	5.9%	5.7%
7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7월	49.2	49.0
7월31일	10:30	중국	공식 종합 PMI	7월		52.3
7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7월		53.2
7월3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7월		36.2
7월31일	14:00	일본	건설주문 YY	6월		4.2%
7월31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6월	-0.2%	3.5%
7월31일	18:00	유로존	조화 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7월	5.3%	5.5%
7월31일	18:00	유로존	GDP 속보치 YY	2분기	0.5%	1.0%
7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7월	43.0	41.5
7월31일	23:30	미국	델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7월		-23.20
8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7월		1,247.2B
8월1일	08:30	일본	실업률	6월	2.5%	2.6%
8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7월		49.4
8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	7월	50.3	50.5
8월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6월	6.5%	6.5%
8월1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7월		49.0
8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6월	0.6%	0.9%
8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7월	46.8	46.0
8월1일	23:00	미국	JOTLS 구인건수	6월	9.620M	9.824M
8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7월		3.100M
8월2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7월28일 주간		206.9
8월2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	7월	188k	497k
8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7월		53.9
8월3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6월	-0.2%	-1.9%
8월3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7월		40.709k
8월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24일 주간	227k	221k
8월3일	21:30	미국	생산성 잠정치	2분기	2.0%	-2.1%
8월3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6월		4.7%
8월3일	23:00	미국	공장주문 MM	6월	2.3%	0.3%
8월3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7월	53.0	53.9
8월4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6월	0.2%	0.0%
8월4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7월	200k	209k
8월4일	21:30	미국	실업률	7월	3.6%	3.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1일(화)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오후 1시30분)

8월2일(수)

- ⊙ 일본은행(BOJ), 6월15-16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8월3일(목)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및 회의록 공개, 통화정책보고서 발행 (오후 8시)

▶ 주간 세계 5대 이슈

⊙ 영란은행 금리 결정

영란은행의 오는 8월2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2월 이후 처음으로 가속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확인됐다.

영란은행은 그러나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플레이션율을 고점인 11.1%에서 7.9%로 낮추는데 유럽중앙은행(ECB)보다 약 두 배인 8개월이 걸렸다.

머니마켓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이번 회의 25bp 인상과 50bp 인상 전망으로 양분돼 있고, 투자자들은 영란은행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 파운드에 대한 낙관적 베팅을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美 고용지표와 어닝시즌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5.25-5.50%로 인상한 뒤 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모드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회의 때까지는 두 번의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정돼 있다.

그 중 첫 번째인 7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가 8월4일 발표된다.

탄력적인 고용 성장세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도 견고한 노동시장이 확인되면 연준이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계속 긴축해야 하리라는 우려가 초래될 것이다. 반대로 고용 성장세가 크게 줄어들면 경기침체 우려가 재점화될 것이다.

한편 오는 8월3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유로존 경제지표와 금리 베팅

ECB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고, 9월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유로존의 7월 인플레이션과 2분기 GDP를 시작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금리 베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기초적 물가 상승세는 역사적 최고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다시 가속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존 경제가 2분기에 전분기비 0.2% 성장했으리라고 추정했다.

경제지표가 9월 인상 가능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선행적 성격의 경제지표들은 확실히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어 ECB 비둘기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HSBC 실적 발표

HSBC가 8월1일 혼조적이었던 유럽 은행들의 어닝시즌을 마무리한다.

투자자들은 HSBC가 지난 분기 20억달러 주식 바이백을 발표하고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배당금 지급을 재개한 이후 새로운 주식 바이백을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또 보수적으로 보이는 HSBC의 순 이자소득 340억달러 전망의 상향 조정 여부도 지켜볼 것이다.

HSBC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확대되길 고대해 왔지만, 힘든 예금주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라는 정치적 압박으로 영국 내 상황은 쉽지 않았다.

또 중국의 불안한 경기 회복세는 100억달러에 달하는 HSBC의 중국 상업용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할 수 있다.

◎ 中 부동산 부양책?

고전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이 여전하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성명에서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이 같은 기대감에 불이 붙었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동산시장 호황은 부진한 소비자 지출을 살리는 열쇠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 버블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 개발업체들은 아직도 그 여파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이를 경계할 것이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산업이익이 6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며칠 내에 나올 PMI에서도 희망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하반기 신용시장 대회전 앞두고 대출제도 개편한 한은... “모든 길은 부동산 PF로”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7월2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시중은행 자금유통의 탄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안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져가는 시점에 발표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는 멈췄지만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PF 사업장이 집중돼 있는 비수도권, 비주택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기관들의 자금 사정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여기에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십 여개 PF사업장의 청산이 여러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투자심리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연말 자금시장 혼란 반복과 지난해 학습효과

관건은 연말로 다가가면서 전반적인 자금 조달 압박이 커진다는 점이다.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연말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악화와 함께 만기 자금의 재예치를 확신할 수 없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 경쟁을 벌여왔다. 매년 10월과 11월경 단기자금시장의 혼란이 반복된 건 이 때문이다.

예금 수신기관간 자금 조달 경쟁이 격화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제2금융권의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PF 부문 손실 규모가 큰 기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와 맞물린 은행채 대란의 학습효과도 남아 있다 보니 올해에도 경계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 은행 자금 여력 확보로 안전판 마련

한은이 당초 이달까지만 한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기로 했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을 상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기로 한 건 은행권의 자금 운용 여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장 직접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니지만 적격담보에 포함돼 있는 통안채를 은행채로, 은행채를 AA 회사채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는 심리적 안전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채권의 유통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유동성 개선 효과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전반적인 은행의 자금 운용 여력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상시 적격담보증권에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시킨 건 시장 안정에 대한 한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

▲부동산 PF 사태 재발생시 한은 등판 시그널

여기에 한은은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의 입장이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게 함정이다.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때 한은 지원이 없었던 건 시중은행들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은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가능 여부를 선언적으로 발표한 건 결국 투자심리 개선과 시장 안전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향후 부동산 PF 사태가 재발했을 때 한은이 확실히 등판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히는 부분이다.

▲단기자금시장 변동성 축소 초점 맞춘 자금조정대출금리 인하

이날 한은 발표 중에 가장 뜬금없는 부분은 아마도 은행에 대한 자금조정대출 금리 인하 부분일 것이다.

이날 금통위는 현재 기준금리 대비 100bp 높은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기준금리보다 50bp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에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

현재 한은은 은행의 필요 지준이 파악되면 지준 공급 규모를 자체적으로 전망한 후 통안채 발행과 RP, 통안계정입찰 등을 통해 지준을 관리해 왔다. 은행들이 지준 자금을 운용할 때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고, 지준마감일을 앞두고 필요지준보다 지준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경우에는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자금조정대출은 지준판을 잘못 관리한 은행이 받는 사실상의 페널티(벌칙)다. 하지만 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이 지준 마감 직전에 개별 은행의 자금 부족을 대부분 막아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낮춘 건 일정 부분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제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지난 5월처럼 지준 마감을 앞두고 일부 은행의 자금이 말리며 레포금리가 급등하는 시점엔 자금조정대출금리가 변동폭에 캡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입장에선 레포시장의 자금 조달이 꼬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등 신용 이벤트가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여유자금을 자금조정예금에 넣기보다 가급적 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연말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당국

지난 6월, 금융당국은 당시까지 92.5% 수준이었던 은행 LCR을 7월부터 95%로 2.5%p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70% 수준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올해 초 결정한 대로 8월에 80%로 상향하기로 하고 이미 은행권에 통보한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슈가 되면서 6월까지만 해도 금융·통화 정책당국의 초점이 규제완화 정상화에 맞춰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PF가 여전히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을 가진 이슈라는 사실이 최근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여러 사업장의 생명이 6개월씩 연장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PF 문제를 털어내기 전에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장의 어딘가가 부러지기 전에 금융, 통화당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할지 지켜볼 일이다.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YCC 정책 운용 유연화... 전문가들 반응은?

7월28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26일 초저금리를 유지했지만,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들간의 정책회의를 마친 BOJ는 단기금리 목표치를 -0.1%, 10년물 국채 수익률 목표치를 0% 부근으로 유지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변동폭도 상하 0.5%로 유지했지만 이 변동폭이 "확실한 한계"가 아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OJ는 또 10년물 국채 지정가 오퍼레이션 금리를 기존의 0.5%에서 1.0%로 높였다.

다음은 BOJ 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코멘트다.

◆ 차루 차나나, 삭소마켓츠 시장 전략가

"시장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 BOJ가 정책 긴축을 위한 작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다. 시장은 1% 상한을 테스트할 것이고 이는 엔에 강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 여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무구루마 나오미, 미츠비시 UFJ 모간스탠리 증권 선임 시장 이코노미스트

"국채 지정가 오퍼레이션 금리를 1.0%로 올리면서 BOJ는 사실상 10년물 목표 밴드를 넓혀 수익률 목표를 유연하게 가이드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은밀한 움직임이었다..BOJ는 당분간 조치들이 어떻게 효과적일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 무토 히로아키, 스미토모생명보험 이코노미스트

"BOJ는 수익률 상한선을 유지하고, 국채 지정가 오퍼레이션 금리를 1.0%로 설정했다. 이번 조정은 기술적이고 수익률 상한 확대 등 시장이 미리 구상한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덜 매파적이었다."

◆ 캐롤 콩, CBA 외환 전략가

"BOJ는 10년물 국채 거래 범위 상·하단을 이제 '확실한 한계가 아닌 참고'로 간주하며 유연성을 더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YCC 변화는 순전히 기술적인 것으로 보인다. BOJ는 2024, 2025회계연도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목표보다 낮게 예측하는 등 성명은 계속 도비시한 톤이었다. 예측 기간 내에서는 정책 긴축 신호는 없다."

"우리는 BOJ가 올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동결하리라는 견해를 유지하며 달러/엔이 이번 분기말까지 140에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리라 예상한다."

◆ 매트 심슨, 씨티인덱스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

"BOJ은 약간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격 움직임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YCC 밴드 확대 논의 보도로 기대감이 있었기에 그렇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이 다소 있다...그래도 BOJ가 YCC를 확대하고 결국 폐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연준, 기준금리 25bp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 뒤

7월27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가 26일(현지시간)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 결정은 회의 때마다 결정할 것이며, 현재 환경에서 관계자들은 다음 통화정책에 대한 제한적 가이드스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지표가 정당화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것도 분명 가능하며, 동결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캐시 보스안식 네이션와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

"FOMC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지 않으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드스는 변화가 없다..우리는 연준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 인상을 다했다고 본다."

◆ 베로니카 클락 씨티 이코노미스트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경기침체나 급격한 둔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침체가 없다면 인플레이션도 2%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경제 활동) 속도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

◆ 톰 시몬스 제프리스 미국 이코노미스트

"파월이 향후 전망에 대해 매우 모호했다..우리는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표를 확인하지 않고 9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게나디 골드버그 TD증권 미국 금리 전략 헤드

"성명 변화가 상당히 제한적..유일한 실질적 변화는 경제 활동 속도에 대한 평가가 "온건한"에서 "적당한"으로 살짝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정책결정권자들이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 잭 애블린 크리셋웰스어드바이저스 CIO

"성명으로 볼 때 이번 사이클에서 (인상은) 다 한 것으로 보인다..연준이 이미 인플레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는데, 그들은 편안해지기 위해 추가 조치를 원하는 것 같다."

◆ 피터 카디요 스파르탄캐피탈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고 본다. 연준은 자본시장이 폭발하는걸 원치 않는데, 도비시한 성명을 내놨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다. 연준은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하길 원한다..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낮아졌고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 거프리트 질 골드만삭스에셋매니지먼트 글로벌 채권 거시전 략가

"오늘 연준 회의는 이번 사이클 중 가장 확실하기도, 가장 불확실하기도 하다. 25bp 인상은 완전히 반영되고 예상됐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지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6월 근원 CPI가 급격히 둔화돼 최근 지표는 7월 금리 고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용비용지수와 PCE 등 주요 지표에서 인플레이 조짐이 살아나면 인상 경로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 퀸시 크로스비 LPL파이낸셜 수석 글로벌 전략가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반사적으로 하락한 것은 적어도 국채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연준이 긴축 종료에 다소 가까워졌을 가능성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내전문가반응) - 향후 지표 강조한 예상 수준 FOMC에도 '도비시한 포인트' 주목

서울, 7월27일 (로이터) -

국내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7월 정책회의 결과가 예상 수준이라고 진단했지만, 일부 도비시한 포인트가 나타난 데 주목했다.

연준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25bp 인상하며, 성명을 통해 "적절한 추가 정책 긴축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지켜보고 경제에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의존적인 접근법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지난 6월 회의와 비교했을 때 스탠스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연착륙 전망이 좀 더 강화되고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한 점 등을 도비시하게 평가했다. 또한, 점도표상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경제지표가 혼재된 만큼 다음 9월 회의까지 약 8주 간의 남은 기간 동안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8월 잭슨홀 미팅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7월 회의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코멘트다.

▲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7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됐고, 인상 재개 및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그 자체로 매파적인 통화정책 이벤트였다는 견해다. 여전히 물가 부담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그간 연준이 꾸준히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이는 동시에 통화당국이 이미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금리 인상은 이번 25bp로 그치고, 이후에는 긴축의 여지를 남기는 정도로 연준의 행보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6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스태프들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기술적 침체를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경제의 회복력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침체를 예측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활동 확장이 완만하게나마 지속된다면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전부터 연착륙을 전망하며 침체를 예상하지 않았고, 이날 '약간의 인내심(a little patient)'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 연준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된 점 등은 다소 도비시한 포인트였다는 판단이다."

▲ 황수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점도표 상 1회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을 고수한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었던 생각이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긴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싶다고도 했다. 그런데 고용, 물가지표가 불안정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안 할 수도 있

다는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 박상현 · 류진이,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7월 FOMC는 악재도 호재도 없었던 회의로 요약할 수 있다. 애매한 수준의 경제지표가 연준 통화정책의 모호성을 짚게해 준 것이다. 즉,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결정에 있어 포워드 가이드언스보다 회의 개최 시마다 라이브 결정할 것을 강조한 것은 물가와 성장 그 어느 쪽도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나 동결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이다."

▲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3분기 중 혼재된 지표들이 통화 긴축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황을 지속시킬 보이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4분기 중 실업률 상승 등 노동시장 둔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한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시장 잡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영향력을 지켜보기 위한 9월 FOMC 동결과 연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 임재균, KB증권 애널리스트

"파월은 회의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FOMC는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지만 의사록에서 투표권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위원은 6월 인상을 주장한 것이 확인됐는데, 7월 FOMC에서는 투표권이 존재하지 않는 위원이 동결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9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만,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 연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한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

▲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9월 인상 가능성 열어두었으나 데이터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열린 결말을 제시했다. 연준 목적이 디스인플레이션과 연착륙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면 Higher보다는 Longer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미국은 실질 기준금리 기준 긴축여건에 돌입했고, 아직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경기 리스크를 지고 금리를 좀 더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사실상 7월 마지막 인상이 되겠지만 9월 인상 염두에 두고 주요 지표 전후 금리 상방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